

전시를 열며

화협옹주 1733~1752년은 조선 21대 임금인 영조의 따님으로 사도세자의 친누이입니다. 11살 1743년에 혼인하고, 20살 1752년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무덤은 경기도 남양주시 삼패동에 있다가 1970년대에 이장되었지만 발굴 조사 후 흥미로운 유물들이 출토되었습니다.

이 무덤의 주인이 화협옹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회지석, 아버지 영조가 딸의 죽음을 슬퍼하며 지은 묘지명이 담긴 묘지석, 생전에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화장품과 용기들, 거울과 거울집, 먹 등이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용기 안에는 화장품이 고스란히 남아 있어 주목되었습니다.

이번 전시에는 화협옹주가 사용했던 화장 관련 유물뿐 아니라 보존과학적 연구 성과도 함께 공개합니다. 조선시대 얼굴 단장의 화장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Princess *Hwahyeop* was born in 1733 as the seventh daughter of King *Yeongjo*, the twenty-first king of the Joseon Dynasty, and her younger brother was Crown Prince *Sado*. Princess *Hwahyeop* married *Shin Gwang-su*, in 1743 when she was eleven years old, and she passed away in 1752 at the age of twenty. She was buried together with her husband, but in the 1970s their tombs were relocated. Recently, the landlord discovered the original burial mounds and excavations were conducted on three separate occasions from 2015 through 2017.

A variety of objects were found during the excavations, including a tablet identifying the tomb owner as Princess *Hwahyeop*, an epitaph written by King *Yeongjo* lamenting his daughter's death, cosmetic products that she had used, their containers, a mirror, a mirror case, an inkstone, a water dropper, and ink. A conservation team at the museum examined the objects and discovered that the containers still held cosmetic residues inside.

The National Palace Museum of Korea hopes our visitors gain a vignette of life of the Joseon royal family through this new excavation and our research.



국제학술대회

18세기 조선왕실 화장품과 화장문화

- 일시 : 2019. 10. 16. WED 9:30 ~ 18:00
- 장소 : 국립고궁박물관 본관 강당
- 공동개최: 국립고궁박물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고려문화재연구원

등록 및 개최

09:30~10:00		참석자 등록	
	개회사	지병목_국립고궁박물관장	
	축사	정재숙_문화재청장	
10:00~10:30			
	축사	김병모_고려문화재연구원장	
	축사	김영모_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장	
	기념 사진촬영	내빈, 발표, 토론자	

1부 : 화협옹주와 조선시대 화장품

사회: 권혁남_국립고궁박물관

10:30~11:00	조선시대 사대부 모제와 영성위 신광수-화협옹주묘	최광훈_고려문화재연구원
11:00~11:30	화협옹주묘 출토 화장품 보존연구	김효윤_국립고궁박물관
11:30~12:00	조선시대 화장품의 분석과 재현	정용재_한국전통문화대학교
12:00~14:00	전시유물 관람 및 점심식사	자유 관람

2부 : 18세기 화장문화

사회: 임경희_국립고궁박물관

14:00~14:30	18세기 화장용 자기의 특징과 수용과정을 통해 본 조선왕실의 화장문화-화협옹주묘 출토품	곽희원_국립고궁박물관
14:30~15:00	18세기 중국 화장품 발전의 역사 History of Chinese Cosmetics Development in the 18th c.	장완핑 張婉萍_ 상해응용기술대학
15:00~15:30	18세기를 중심으로 한 일본의 화장품과 화장문화 18世紀 日本の化粧品と化粧文化	무라타 타카코 村田孝子_ 플라문화연구소
15:30~16:00	18세기 유럽의 화장품 Les Cosmétiques en Europe au XVIIIème Siècle	프레드릭 르로이 Frédéric Leroy_ 로레알-세계화장품학회
16:00~16:20	휴식시간	

종합토론

토론 사회: 전승창_아모레퍼시픽미술관장

16:20~18:00	청중 질의 응답, 종합토론	발표자 7명
		오경택_수도문물연구원
		이명성_국립문화재연구소
		이한형_한국전통문화대학교
		이민주_한국학중앙연구원
		백운기_LG생활건강기술연구원

INTERNATIONAL CONFERENCE

Cosmetics and Makeup Culture of the Joseon Court in the 18th Century

- DATE Wed. 16. Oct. 2019
- PLACE National Palace Museum of Korea, Auditorium
- CO-HOST National Palace Museum of Korea,
The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Cultural Heritage,
Korea Institute of Heritage

2019 국제학술대회 특별전시

조선왕실 화협옹주의 얼굴단장

화협옹주묘 출토유물과 분석연구

Princess *Hwahyeop* and Her Makeup:
Excavated Relics and Their Analysis

2019
10.01.^{TUE}
—
10.31.^{THU}
국립고궁박물관
1층 특별전시실

청화백자 연꽃넙쿨무늬 합 青磁白磁象嵌蓮唐草文盒

White Porcelain Covered Bowl with Lotus Scroll Design

중국 청나라 경덕진

합 안에 담겨있던 갈색 고체 내용물은
밀랍과 유기물이 혼합된 것으로
분석되며 크림 종류로 추정됨



색회 등나무무늬 합 色繪多花紫藤文盒

White Porcelain Covered Bowl with Wisteria Design

일본 에도시대 아리타

합 안에 담겨있던 백색 가루는
탄산납과 활석으로 분석되며
얼굴을 하얗게 만드는
파운데이션 역할을
하였음



청화백자 칠보무늬 팔각호 青花白磁七寶文八角壺

White Porcelain Octagonal Flat Jar with the Seven Treasures Motifs

한국 조선시대 분원

호 안에 담겨있던 액체류는 강한 산성으로 수 천마리의 개미가
확인됨, 개미산과 아세트산 성분이 분석되었는데
개미를 초에 담가 만든 약 종류일 것이라 추정됨



화협옹주和協翁主

Princess Hwahyeop

氣品從容清秀，事親以誠，事舅若一。

雖處於闕中波蕩之中，自幼至長，湛然靜然，無少間焉。

若不聞焉，若不睹焉，卽和協之性品也。

.....

其錄一行，淚下十行。嗚呼哀哉！嗚呼哀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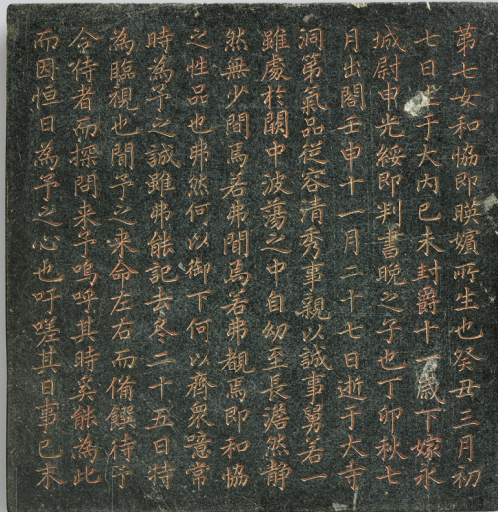
기품은 침착하고 맑았으며 아버이 모시기를 정성으로 하고
시아버지 모시기를 한결같이 하였다.

비록 궁내가 평안치 못한 때에 처하였지만, 어려서부터
장성할 때까지 담박하고도 고요하여 조금도 간여하는 바가
없었으니 마치 듣지 못한 듯이, 보지 못한 듯이 한 것이 곧
화협의 성품이었다.

.....

한 줄 기록하는데 눈물 열 줄기가 흘러내린다.
아, 슬프구나. 아, 슬프구나!

- 묘지석 일부 -



묘지석墓誌石

Epitaph

아버지 영조가 지은 화협옹주의 묘지석
화협옹주의 출생과 사망, 우주의 옴모와 성격,
죽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음

분채백자 풀꽃무늬 잔 粉彩白瓷草花文殘

Bunchae White Porcelain Cup with Floral Design

중국 청나라 경덕진

잔에 담겨 있던 적색 가루는
진사로 분석되며 볼과 입술을
붉게 만들었을 용도로 확인됨



거울 銅鏡

Bronze Mirror

일본

중앙에는 봉황무늬,
위쪽 원 안에 나비무늬,
좌측 하단에는 '광장光長'이라는
명문이 있음
손잡이는 종이를 감싸고
얇게 다듬은 대나무로 수 회 감음

거울집 鏡匣

Silk Mirror Cover

비단을 앞면과 뒷면의
위쪽을 연결하여 만들었고,
앞면에 금실과 비단실로 '壽',
불로초, 대나무, 석류, 복숭아꽃과
열매 등을 자수로 장식함

